



## 포스텍 연구팀, 빛으로 암조직만 괴사 기술 개발

(포항=뉴스1) 최창호 기자

입력: 2014.01.03 15:26:58



포스텍 한세광 교수(왼쪽)와 박사과정의 정호상씨/사진제공=포스텍©News1

포스텍은 3일 미국 하바드의과대학 공동연구팀과 함께 빛을 이용해 암 조직만 선택해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.

포스텍에 따르면 신소재공학과 한세광(45) 교수와 박사과정의 정호상씨가 암에 걸린 동물의 피부에 나노미터 크기의 그래핀을 히알루론산과 접합해 투여한 다음 근적외선을 쬐어 암 조직만 괴사시키는 신기술을 개발했다.

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신 약물투여 등으로 인한 함암치료 과정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한 교수팀의 연구성과는 나노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'ACS Nano' 1월3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.

한편 한 교수는 지난해에도 열을 이용해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며, 최근 3년간 나노의약용 생체재료 개발과 관련해 30여편의 논문을 Nature Photonics, Advanced

Materials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저널에 게재하고 국내외에 30여건의 특허를 출원, 등록했다.

<저작권자 © 뉴스1코리아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